

농어촌공사 5기 사내벤처 선발, 농어촌 발전의 혁신 선도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지난 28일 공사 신사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내 기업가 육성·지원을 통한 경영혁신 활성화를 위해 ‘KRC 사내벤처 팀 선발 IR 대회’를 열고, ‘방초소년단’ 팀과 ‘로컬메이커즈’ 팀을 우수팀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사내벤처팀 선발 IR 대회는 전 직원 공모를 통해 발굴된 7개 분야(재생에너지, 수자원관리, 디지털, AI 등) 20개 아이디어 중 1,2차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에 대해 2개월간 내·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켰다. 이 중 방초소년단의 「비농업분야 생태적 잡초 방제 서비스 사업」과 로컬메이커즈팀의 「우마빌(우리 마을을 빌려드립니다)」이 최종 우수팀으로 선정됐다.

‘방초소년단’팀은 저수지 제당, 육상 태양광발전소, 청사 화단 등 잡초 관리가 필요한 공사 부지에 초생재배* 농법을 활용한 잡초 제어 등 통합 유지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했다.

*초생재배: 과수원 같은 곳에서 풀을 깨끗이 뽑는 대신 목초, 녹비 등을 가꾸는 재배
법으로, 토양 침식방지, 제초노력절감, 지력증진, 수분보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

‘로컬메이커즈’팀은 농촌의 유희시설에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거점시설로 활용하고,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결핍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공유마을 구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사의 지역개발 업무 입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.

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협약 기간동안 벤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▲전담 벤처 조직구성, ▲사전 컨설팅·교육 실시 ▲별도의 사무 공간과

사업자금 등이 지원된다.

이병호 사장은 “기후변화, 식량안보 등 공사를 둘러싼 대·내외 경영환경 변화로, 농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”라며 “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, 농어촌지역의 문제 해결 및 기존 사업의 틀을 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실	책임자	부 장 박규호 (061-338-5201)
	미래사업부	담당자	과 장 최명화 (061-338-5203)